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에 관한 연구(1)

- 주생활행위시 자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welling Style in Seoul

-Focusing on the Behavioral Posture-

장 상 옥*

Jang,Sang Ock

신 경 주**

Shin,Kyung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condition and trends in changing dwelling style, focusing on the behavioral posture.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as used in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402 households (April,1988) and 178 households (April,1994) in Seoul.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Dwelling style related to dwellers in Seoul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changing patterns.
2. The factors which affected on the dwelling style were age, family income, type of house, the size of floor space, and the number of rooms.

I. 서 론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상의 변화로 주거내 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요구가 보다 다양하게 되어,이 변화에 수반된 각종 요

구를 반영한 공간을 계획하고자 하는 노력이 주거 계획분야에서 계속되어 왔다. 또 이 연구의 일환으로 근래에는 주생활양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어, 최근 더욱 활발해지는 경향이다.

현재 우리 가정의 주생활양식중 기거양식¹⁾은 기존의 좌식생활에서 입식 가구의 도입으로 일부 생활행위에 입식화가 진행되어(장상옥,신경주,1990), 주공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변화된 생활

* 한양대학교 강사

**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1)인간의 행동 동작중 주로 앉고 서는 동작에 관련된 생활양식의 의미로 주생활시 신체자세와 입식가구의 이용측면으로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생활행위시의 기거양식의 현상과 앞으로의 변화 파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기거양식관련 연구는 각 공간의 사용방식에 관한연구(이훈,1975;최명찬,1983;전한중,박용환,1986;윤정숙,이은경,1990;김미희,윤복자,1992;정준현,이중우,1993)와 평면구성의 분석으로 주생활의 변화를 파악한 연구(임재홍,1981;신수현,1983;박윤정,1991)등에서 주로 주생활양식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기존의 연구는 식사,단란,취침,공부등의 일부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외의 생활행위 파악이 미비하거나, 한 가정을 분석단위로 공간별 기거양식만을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개개인의 특성은 밝히지 않았다. 또 장래의 기거양식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시계열적인 연구도 부족하여, 앞으로는 전 생활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거양식에만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연구가 요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거양식의 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변화 방향성을 예측하여, 이에 적합한 공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의 목적으로,대도시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6년간의 시차를 두고 각 주생활행위시의 자세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거양식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연도별 주생활행위시의 기거양식을 파악하고, 아울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기거양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현재의 기거양식의 성향과 장래의 선택과의 관계를 알아보고,마지막으로 각 생활행위별 기거양식의 변화유형을 통해 장래의 방향성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의 주택계획과 가구,설비,생활기기등의 계획시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도시 지역 거주자의 기거양식을 파악하고자 서울시에 소재한 유치원,초,중,고,대

학교 재학생의 가정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1차 조사는 1988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였으며, 2차 조사는 6년 후인 1994년 4월 11일부터 1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연도별 조사대상은 동일하지 않음).설문지는 1988년에는 총 480부를 배부하여 부실기재를 제외한 402부(83.8%)를 최종 분석하였으며, 1994년에는 총 308부를 배부하여 178부(57.8%)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제작한 설문지(가족원용과 추부기입용으로 구분)를 이용하였으며, 연도별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8년은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 특성인 세대주의 연령, 학력, 직업, 가정의 소득과 주택특성인 주택의 유형, 거주 규모, 방의 수, 난방방식 및 현재와 장래 희망하는 생활행위²⁾시의 자세(기거동작³⁾)를 조사하였으며, 조사단위는 자녀, 부모, 노부모(개인생활행위)이고, 그외의 행위는 주부이었다. 1994년은 일반적인 특성 및 주택특성과 1988년의 문항을 보완하여 생활행위시 기거동작의 항목에 일부 행위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기거동작의 연령별 성향을 파악하고자 조사단위(가사노동행위와 손님접대행위는 주부임)는 전체 가족의 개인으로 하였다(178가정의 총 737명).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등을 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 가정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택특성

2) 생활행위는 기거동작인 입식, 좌식이 명확히 파악되는 행위를 대상으로 공동생활행위(식사, 단란, 접객), 개인생활행위(취침, 독서, 공부), 생리위생행위(세면, 배변, 화장), 가사노동행위(세탁, 다림질, 재봉, 청소, 조리)로 분류하였다.
3) 기거동작은 입식가구등을 신체지지구로 하면 입식, 좌식가구나 바닥면을 신체지지구로 하면 좌식, 입식과 좌식을 혼용하면 혼용식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가정은 전반적으로 중류층으로 볼 수 있었는데, 1994년의 조사대상이 다소 학력이 높고, 연령대가 낮으며,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편이었다.

세대주의 연령은 조사 연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4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1988년이 50대(29.1%), 1994년이 30대(36.3%)로 나타났다. 세대주의 학력은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대졸이상이 1988년은 62.7%이고, 1994년은 82.6%로 후자가 더욱 고학력이었다.

세대주의 직업은 1988년에는 생산, 판매, 서서비스직이 41.4%, 1994년에는 사무, 행정, 관리직이 43.8%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소득은 조사 당시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⁴⁾을 감안해 볼 때 중류층으로 볼 수 있었다.

주택의 유형은 1988년에는 단독주택이 48.3%, 아파트가 35.3%의 비율이었고, 1994년에는 아파트가 73%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이는 그 동안의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비율⁵⁾의 상승을 반영한다고 보더라도 후자의 조사대상이 다소 아파트 중심으로 표집되었다고 보겠다. 주택의 규모와 방수는 연도에 상관없이 20~30평, 31~40평대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높고, 3~4실 거주 가정(1988년은 64.2%, 1994년은 75.3%)이 주로 표집되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 출현하기 전인 1988년은 개별보일러식이 우세하였고(71.9%), 1994년은 지역난방방식의 비율(47.2%)이 가장 높았다.

2. 연도별 주생활행위시의 자세와 그 변화 추이

다음에서는 연도별 전체적인 실태(1988년, 1994년) 각 변인에 따른 주생활 자세의 차이(1988년), 연령별 기거양식과 현재 양식에 따른 장래 희망양식과의 관계(1994년)를 조사하여, 기거양식의 6년간의 변화 및 장래의 방향성을 알아보았

4)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월 평균소득은 1988년이 612,431원이고, 1993년이 1,477,825원이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9:1994).

다.

1) 공동생활 행위

(1) 식사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입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 1).

1988년의 경우는 여름은 입식(54.9%)이 좌식(29.9%)보다 우세하였으나, 겨울은 난방등의 문제로 입식(37.9%)이 감소되면서 좌식(39.4%)이 증가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입식율(72.3%)은 단독주택(43.8%)보다 높아서 주택의 유형별 식사양식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식사행위의 입식율은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파트의 경우에서, 거주면적과 방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높았다($P<.0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 68.3%, 혼용식 24.0%, 좌식 7.7%의 순으로 입식을 가장 희망하였다.

1994년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입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좌식, 혼용식의 순이었다. 연령에 따른 식사양식의 차이 검증 결과, 10대의 입식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다소 높았다($P<.01$).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82.6%)이 가장 많았는데, 50대 이상의 입식 희망율(60.8%)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현재 입식과 좌식 집단 모두 입식 희망율이 가장 높았으나,

현재 혼용식 집단은 장래에도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01$).

식사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입식에서 입식으로 입식양식이 유지되었고, 또한 입식희망율도 높았으므로 장래도 계속 입식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표1).

(2) 단란행위

1988년은 좌식과 혼용식이, 1994년은 입식이 가장 많아 6년간 기거양식의 변화가 현저한 행위 중의 하나이었다(그림1).

5)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 주택 유형의 비율은 1985년에는 단독주택 58.6%, 아파트 26.1%이고, 1990년에는 단독주택 46.1%, 아파트 35.1%이었다(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7: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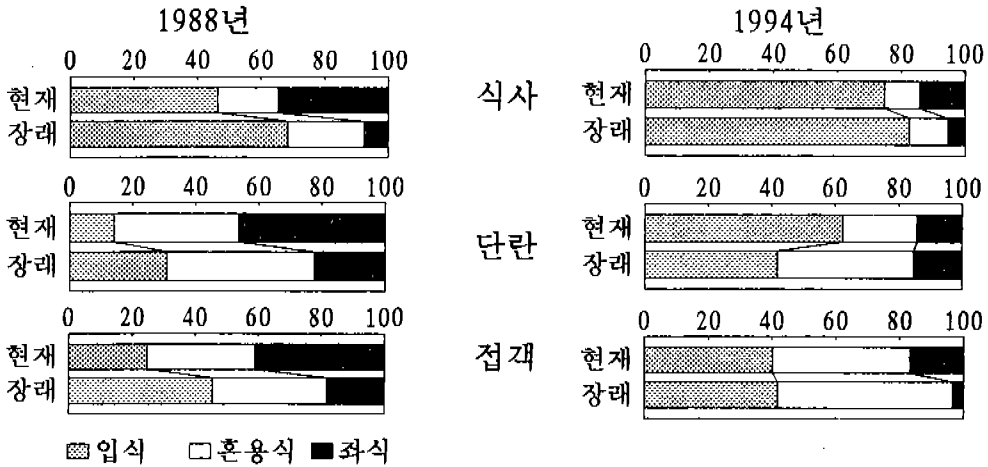


그림1. 연도별 공동생활행위시의 기거동작

1988년의 경우는 자녀의 혼용식비율(50.1%)이 가장 높고, 부모와 노부모는 좌식(각각 46.5%, 61.2%)이 높게 나타나 연령간의 차이를 보였다. 자녀와 부모는 가정의 소득 증가에 비례해서, 거주면적과 방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혼용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P<.001), 노부모는 각 변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혼용식이었다.

1994년의 경우는 연령이 높을수록 입식율이 다소 낮아져서 40대와 50대의 입식율은 약 50%이었다(P<.001). 장래 희망양식은 혼용식(43.1%)이 가장 많았으며, 입식(41.7%)은 현재보다 감소하였다. 10대와 20대는 입식(약 60%), 30대는 혼용식과 좌식을, 40대와 50대 이상은 혼용식(약 50%)을 가장 희망하였다(P<.01). 현재 입식 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고, 현재 혼용식 집단의 80% 이상은 혼용식을 희망하였으며, 현재 좌식 집단은 3가지 양식을 비슷한 비율로 원하였다(P<.0001).

단란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좌식, 혼용식 병존에서 입식으로 진행하였으나, 혼용식 희망율이 높아서 장래는 입식과 혼용식의 병존이 예상되었다(표1).

(3) 손님접대행위

1988년은 전체적으로 좌식과 혼용식이, 1994

년은 혼용식과 입식의 비율이 높았다(그림1).

1988년의 경우는 업무관계손님의 접대시는 입식(48.8%)이 높았으나, 친지등의 손님접대는 좌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면적과 방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의 경우에서 손님접대행위시의 입식율이 높았다(P<.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45.6%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업무관계손님 접대시의 입식희망율은 매우 높아서(75.1%) 손님의 유형별 접대양식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1994년의 경우는 업무관계손님의 접대시는 입식율이 72.6%로 가장 높았고 그외 친지 및 친구의 접대시는 혼용식의 비율이 높았다. 장래 희망양식 역시 현재와 같은 혼용식(54.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입식(41.8%), 좌식(3.5%)의 순이었다. 그러나 업무관계의 손님접대는 현재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입식

(79.9%)을 원하고 있었다. 현재 입식 집단의 입식 희망율은 매우 높고, 혼용식 집단은 혼용식, 좌식 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였다. 이외의 접대시는 현재 입식과 좌식 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각각 반 정도씩 희망하였고, 혼용식 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1).

손님접대행위시의 6년간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로 좌식, 혼용식 병존에서 혼용식, 입식병존으로의 진행단계였으나(표1), 업무관계손님의 접대시는 연도에 관계없이 입식으로, 손님의 유형별로 접대시 기거양식의 차이가 보였다.

전반적인 공동생활 행위시의 입식화 순서를 보면 1988년은 식사(46.4%)→손님접대(25.0%)→단란(14.1%)의 순으로 식사행위가 가장 많이 입식화되었고, 1994년은 식사(74.9%)→단란(62.3%)→손님접대(40.2%)의 순으로 단란행위의 입식율이 급증하였으며, 6년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입식율이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2) 개인생활 행위

(1) 취침행위

1988년은 좌식이 지배적이었으나, 1994년은 좌식이 점차 감소하여,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그림 2).

1988년의 경우는 부모와 노부모세대의 좌식율(각각 81.8%, 98.6%)은 자녀세대(63.1%)보다 높아 세대간의 차이가 보였다. 자녀와 부모의 취침양식은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면적과 방 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의 경우에서 입식의 경향이 강하였으나($P < .001$), 노부모의 취침양식은 각 변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 완고한 노인의 행동성향을 볼 수 있었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좌식의 비율이 높았으나, 자녀세대는 입식(65.3%)을 가장 희망하였다.

1994년의 경우는 연령에 따라 취침양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보였는데($P < .001$), 특히 10대와 20대는 입식율(각각 64.2%, 59.6%)이 제일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약 반반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에, 50대 이상은 좌식(75.7%)이 우세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66.6%)이 가장 많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 희망율(80% 이상)은 더욱 높았다($P < .001$). 현재 입식집단의 약 95%는 장래도 입식을 희망하였으며,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고, 좌식집단은 좌식과 입식의 희망율이 거의 비슷하였다($P < .001$).

취침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전체적으로 좌식에서 좌식, 입식의 병존으로 이행하였는데(표1), 10대와 20대의 자녀세대는 좌식에서 입식으로 진행하였고, 30대와 40대는 좌식이 감소하여 입식을 반 정도 수용한 단계이었으며, 50대 이상은 여전히 좌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므로 50대 이하의 연령대는 현재와 장래 모두 입식율이 증가하여 취침양식의 입식화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독서행위

1988년은 좌식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1994년은 입식이 우세하였다(그림2).

1988년의 경우는 자녀는 입식(43.8%), 부모는 혼용식(39.7%), 노부모는 좌식(74.1%)으로 세대간 차이가 뚜렷하였다. 자녀와 부모는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주면적과 방 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의 경우에서 입식의 경향이 강하였으나($P < .001$), 노부모는 각 변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53.7%로 가장 많았는데, 노부모세대는 좌식희망율(44.4%)이 현재보다 낮아져서 좌식양식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었다.

1994년의 경우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입식의 경향이 강하였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좌식율이 약 반수를 차지하였다($P < .0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 그 다음이 혼용식, 좌식의 순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을 희망하였다($P < .01$). 현재 입식집단의 60% 이상은 입식을 희망하였고, 좌식집단은 혼용식과 입식의 희망비율이 비슷하였다($P < .0001$).

독서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좌식, 입식, 혼용식의 병존에서 입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와 장래 모두 연령대 별로 기거양식의 차이가 뚜렷하여, 장래에 청년층은 입식이, 50대 이상은 좌식양식이 예상되었다.

(3) 공부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입식율이 가장 높아 입식이 정착된 것으로 보였다(그림2).

1988년의 경우는 입식(단독주택 67.7%, 아파트 80.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혼용식, 좌식의 순이었는데, 입식 책상과 좌식책상(또는 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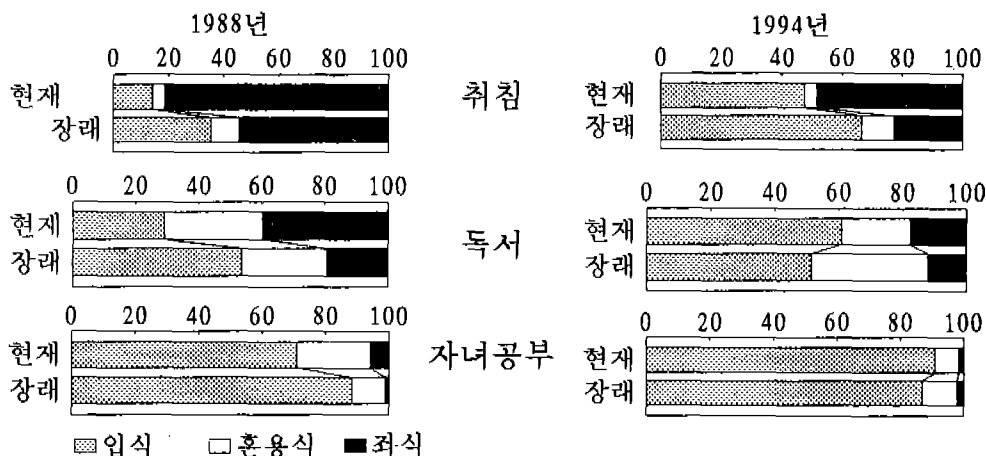


그림2. 연도별 개인생활행위시의 기거동작

밥상의 대용)의 혼용율(23.2%)도 적지 않았다.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주면적과 방 수가 증가할수록 공부행위의 입식율이 높았다(P<.001). 장래 희망양식도 현재와 같은 입식이었다.

1994년의 경우는 입식이 90.9%로 1988년보다 증가하여 입식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취학전 자녀가 포함되는 10대 이하의 입식율은 67.1%로 10대와 20대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었다.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87.8%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보다는 약간 낮은 비율이었다. 현재 입식집단의 90%이상이 입식을 희망하였고,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다(P<.001).

공부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입식에서 입식으로, 입식 책상의 사용이 정착되었다(표1).

전반적인 개인생활행위의 입식화 순서를 보면 1988년은 자녀의 공부(71.0%)→독서(29.0%)→취침(14.3%)의 순으로 취침의 입식화가 가장 늦었으며, 1994년은 자녀의 공부(90.9%)→독서(60.7%)→취침(47.7%)순으로 그 순서는 1988년과 같으나 전반적으로 입식율이 증가하였다.

3) 생리위생 행위

(1) 세면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입식이 가장 많으면서 계속

입식양식이 증가하고 있었다(그림3).

1988년의 경우는 입식(입식세면대 사용)이 69.6%, 좌식(바닥에서 세수대야사용)이 25.6%, 혼용식(세면대와 세수대야의 혼용)이 4.8%의 순이었다. 세면행위의 입식율은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주면적과 방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았다(P<.0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85.3%), 혼용식(11.7%), 좌식(3.0%)의 순으로 좌식이 감소하고 입식이 증가하는 경향이였다.

1994년의 경우는 전 연령대별로 입식(87.5%)이 가장 많았는데 10대와 20대는 입식율이 90% 이상으로 높았던 반면에, 30대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장래 희망양식은 연령에 상관없이 입식이였다. 입식희망율은 입식집단이 95%이상, 좌식집단은 58.3%였으며,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의 희망율이 높게 나타나(P<.001). 입식과 좌식집단은 입식을 원하였으나,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였다.

세면행위의 6년간의 변화 추이는 입식에서 입식으로, 세면대의 사용이 정착되었다(표1).

(2) 목욕행위

1994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입식(목조안에서 선 자세의 샤워식)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좌식(목조 밖의 바닥에 앉아서 목욕), 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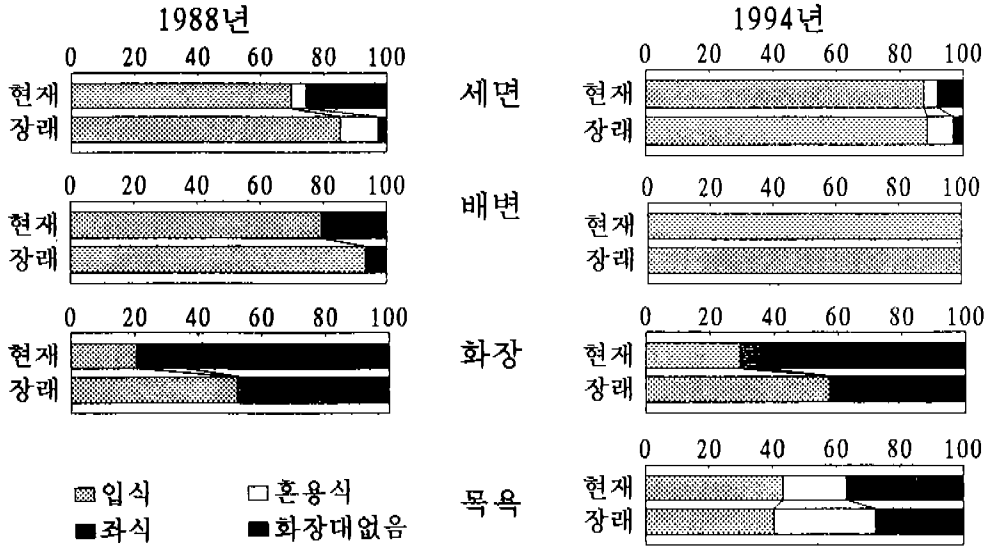


그림3. 연도별 생리위생행위시의 기거동작

식(입식과 좌식의 혼용)의 순이었다. 목욕행위는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율이 높았고, 50대 이상은 반수가 좌식으로 입식율(16.7%)이 가장 낮았다. 앞으로 희망하는 양식은 3가지 양식 모두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70%이상)을 희망하고, 좌식집단은 좌식희망율이 63.4%, 혼용식집단은 혼용식 희망율이 93.8%로 ($P<.001$).

혼용식집단의 혼용식 유지희망율이 아주 높은 편이었다. 이로 보아 각각 현재의 양식에 만족하여, 다른 양식제로의 변화없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목욕행위는 현재 입식이 다소 많았으나, 장래의 희망율을 감안하면, 당분간 3가지 양식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배변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입식(양변기 사용)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3).

1988년의 경우는 입식이 79.4%였으며, 전체의 93.3%가 입식을 희망하였다. 배변행위는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거주면적과 방수가 증가할수록, 아파트에서 입식율이 높았다($P<.001$).

1994년의 경우는 현재 장래 모두 100% 입식으로 나타나 배변행위의 입식이 정착되었는데, 다른 생활행위시보다 입식의 진행속도가 빨랐다. 이

는 좌식보다 입식쪽의 기거동작이 편하기 때문으로 보였다.

배변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입식에서 입식으로, 장래도 양변기의 사용이 예상되었다(표1).

(4) 화장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좌식이 우세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입식율이 다소 증가하였다(그림3).

1988년의 경우는 좌식이 63.9%, 입식이 20.6%, 화장대 없음이 15.5%의 순이었으나,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52.4%로 현재의 좌식양식에서의 변화를 희망하였다. 화장 양식은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좌식율이 다소 높았다($P<.001$).

1994년의 경우는 입식이 29.5%로 1988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는데, 20대는 입식율이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입식과 좌식이 고른 분포를 보였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좌식율이 97.1%로 연령이 높을수록 좌식의 비율이 높아지는 행위중의 하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전체적으로 입식이 57.4%, 좌식이 41.3%로 입식을 선호하였는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입식을 희망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희망율, 좌식집단은 좌식희망율이 높아서($P<.001$), 각각 현재의 양식이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화장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좌식에서 좌식으로, 다른생활행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식의 진행속도가 느렸다<표1>. 연령별 차이는 현저하여 20대는 입식이, 50대 이상은 좌식이 예상되었다.

전반적인 생리위생행위의 입식화 순서를 보면, 1988년은 배변(79.4%)→세면(69.6%)→화장(20.6%)의 순으로 배변행위의 입식율이 가장 높았으며, 1994년은 배변(100%)→세면(87.5%)→목욕(43.1%)→화장(29.5%)의 순으로 배변과 세면행위는 입식율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화장행위는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

4) 가사노동행위

(1) 세탁행위

세탁행위는 연도에 상관없이 혼용식(세탁기사용과 손빨래의 혼용)이 제일 많았다 (그림4).

1988년의 경우는 혼용식(74.7%), 좌식(14.2%), 입식(11.1%)의 순이었는데, 아파트에서는 혼용식율이 높았고, 한옥식 단독주택에서는 좌식율이 높았다. 장래 희망양식은 혼용식(60.3%), 입식(38.0%), 좌식(1.7%)의 순으로 혼용식의 유지의사가 보였으나, 입식 희망율도 적지 않은 편이었다.

1994년의 경우는 혼용식(77.9%), 입식(19.8%), 좌식(2.3%)의 순으로 나타나 1988년에 비하여 좌식이 감소한 반면, 입식이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3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용식이 현저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혼용식(62%), 입식(37.2%), 좌식(0.7%)의 순으로 현재보다는 입식 선호 경향이 증가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은 앞으로도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여 ($P<.01$), 좌식을 제외하고 각각 기존의 양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탁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혼용식에서 혼용식으로,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와 손빨래를 혼용하는 양식이 유지되었으므로<6>, 당분간

입식화되지 않을 행위로 예상되었다<표1>.

(2) 다림질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좌식율이 70% 이상으로 나타나 좌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림4).

1988년의 경우는 좌식(80.9%), 혼용식(12.9%), 입식(3.5%), 다림질 하지 않음(2.7%)의 순이었고,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51%로 가장 많았으며, 좌식(25.5%)과 혼용식(21.5%)은 거의 비슷한비율로 입식 선호 경향이였다.

1994년의 경우는 1988년과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좌식양식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연령별 다림질 양식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이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혼용식(32.9%), 좌식(20.4%)으로 현재보다는 좌식이 감소한 반면, 입식과 혼용식의 희망이 증가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으며,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의 희망비율이 비슷하였다($P<.001$).

다림질 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좌식에서 좌식으로<표1>, 변함없이 좌식이 압도적이었으나, 희망면에서는 계속 입식을 선호하였는데 이 행위는 시간의 경과에도 희망율만큼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좌식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재봉행위

연도에 상관없이 재봉을 하지 않는 비율(1988년 56.5%, 1994년 75.4%)이 계속 증가하여 가장 높았는데, 재봉 행위는 이미 사회화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림4).

1988년의 경우는 재봉하지 않음의 비율을 제외하면 입식율이 좌식율보다 높았다. 앞으로의 희망은 입식이 가장 많았고, 재봉하지 않음과 좌식은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1994년의 경우 좌식율이 다소 높았는데(재봉하지 않는 비율의 제외), 연령이 높을수록 그 경향이 뚜렷하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좌식과 입식의 비율이 각각 35.8%, 35.9%로 거의 비슷하였다.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좌식집단은 좌식을 희망하므로($P<.001$), 전체 비율에서는 좌식이 우세하여, 이 양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재봉행위의 6년간의 변화추이는 입식에서 좌식

6) 세탁기의 이용시 때가 고루 빠지지 않음(33.5%), 세탁물이 서로 엉기거나 상함(23.3%), 물, 세제 낭비가 큰 점(17.6%) 등의 불만사항(한국개발조사연구소:신경주(1989)에서 재인용)으로 세탁기와 손빨래를 혼용하는 방식이 우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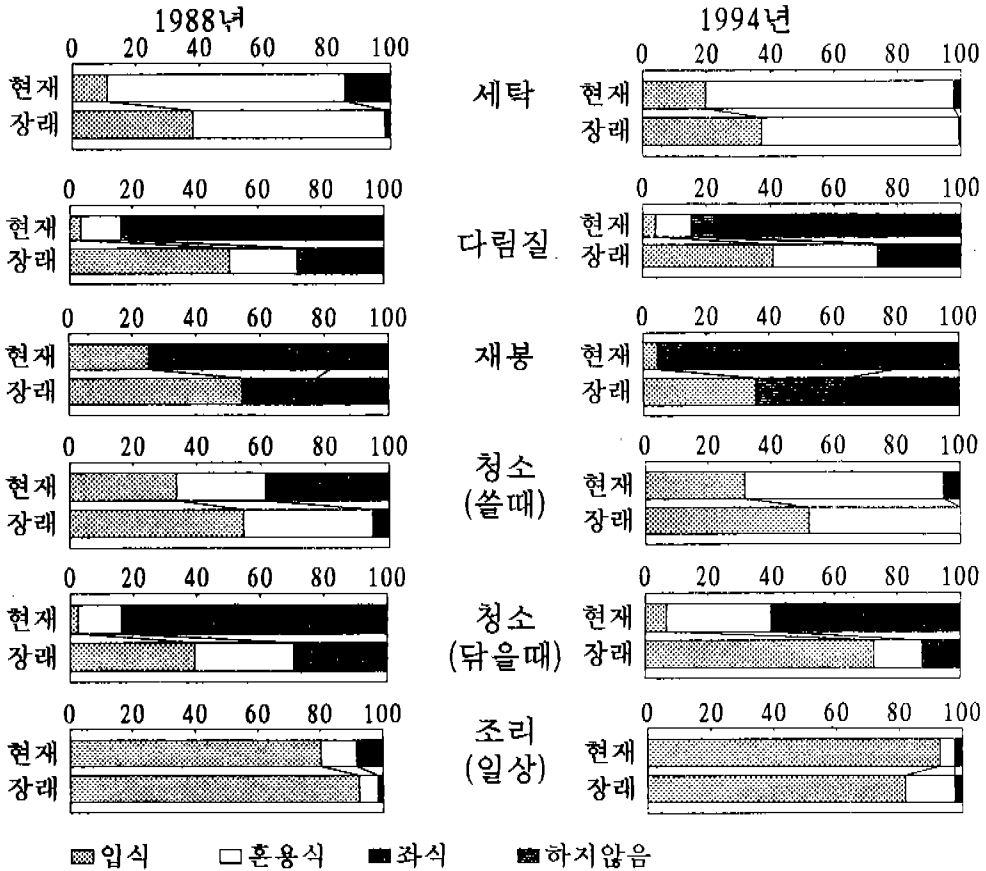


그림4. 연도별 가사노동행위시의 기거동작

으로, 역전되어 다른 행위와 대조적인 진행과정을 보였는데(표1). 이는 재봉틀이 입식고정형에서 입.좌식겸용으로 변화했기 때문으로 보였다.

(4) 청소행위

청소시 쓸때는 1988년은 좌식(재래식 비틀 사용), 혼용식(전기청소기와 재래식비의 혼용), 입식(전기청소기나 자루가 긴비를 사용)이 고른 비율을 보였고, 1994년은 혼용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그림4).

1988년의 경우는 어느 한가지의 양식이 우세하지 않아 3가지의 양식이 병존하였는데, 가정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입식의 경향이 강하였다($P < .001$). 장래 희망양식은 입식(54.6%), 혼용식(40.2%), 좌식(5.2%)의 순으로 좌식이 감소한 반면 입식 희망율이 높았다.

1994년의 경우는 혼용식이 63.4%로 가장 많았으며 입식(31.5%), 좌식(5.1%)의 순이었는데, 50대 이상의 입식율(14.3%)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혼용식율(85.7%)이 상당히 증가하여 연령간의 차이를 보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과반수 이상이 입식을 희망하였는데,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혼용식집단은 혼용식을 좌식집단은 입식과 혼용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P < .001$).

청소시 뒹을 때는 연도에 상관없이 좌식(엎드려서 뒹음)이 가장 많았다.

1988년의 경우는 전체의 80% 이상이 좌식이었으며, 혼용식이 13.7%, 입식이 2.5%였는데, 거주면적이 클수록 입식의 경향이였다. 앞으로 희망하는 양식은 입식(입식대걸레 또는 물걸레 청소기로 뒹음), 혼용식, 좌식의 순으로 거의 비슷

한 비율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입식희망율이 다소 높았다.

1994년의 경우는 좌식이 60.1%, 혼용식이 33.2%, 입식이 6.7%로 1988년에 비하여 혼용식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혼용식율이 높아졌다. 장래 희망양식은 현재와 대조적으로 입식(70% 이상)이 매우 높고, 현재 3집단 모두 입식을 희망하여(P<.05) 다른 가사노동 행위와 다른 패턴을 보였는데, 이는 에너지소비가 많은 닦는 행위를 입식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였다. 그러나 현재 효율성있는 닦는 청소용의 기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래 희망과 달리 좌식이 유지되므로 관련 기기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청소시 쓸때의 6년간 변화추이는 좌식, 입식, 혼용식의 병존에서 혼용식으로 이행하여, 당분간 혼용식이 예상되었다. 닦을때의 행위는 좌식에서 좌식으로, 장래에도 쉽사리 입식화되지 않을 행위로 보였다<표1>.

<표1> 행위별 기거양식의 변화유형 (1988년 ~ 1994년)

변화유형		해당행위
입식형	입식 → 입식	식사, 공부, 세면, 배변, 일상적조리
	입식, 혼용식, 좌식 병존 → 입식	독서
	혼용식, 좌식병존 → 입식	단란
혼용식형	혼용식 → 혼용식	세탁
	입식, 혼용식, 좌식 병존 → 혼용식	청소시쓸때
좌식형	좌식 → 좌식	화장, 다림질, 청소 닦을때
	입식 → 좌식	재봉
병존형	혼용식, 좌식병존 → 입식, 혼용식병존	손님접대
	좌식 → 입식, 좌식병존	취침

- * 입식형 : 현재 입식의 비율이 높은형
- 좌식형 : 현재 좌식의 비율이 높은형
- 혼용식형: 현재 혼용식의 비율이 높은형
- 병존형 : 현재 입식과 좌식의 비율이 비슷하게 병존하는 형

(5) 조리행위

일상적인 조리행위는 시간경과에 따라 입식이 증가하여 입식이 정착되었다(그림4).

1988년에는 입식이 80.3%였고, 입식 희망율은 90% 이상이었다.

1994년의 경우 일상적인 조리행위시에는 입식이, 김치담그기, 야채다듬기등의 비일상적인 조리시에는 좌식(바닥공간을 이용)이 우세하여, 조리내용에 따라 기거양식에 차이가 보였다. 장래 희망양식은 일상적인 조리는 입식이고, 비일상적인 조리는 좌식으로 현재의 입식작업대로 이 행위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보였다. 일상적인 조리는 현재 입식과 혼용식집단은 입식을 희망하였으며, 비일상적인 조리는 현재 입식집단은 입식을, 좌식집단은 좌식을 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상적인 조리행위의 6년간 변화추이는 입식에서 입식으로, 입식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

전반적인 가사노동행위의 입식화 순서를 보면 1988년은 일상적인 조리(80.3%)→청소시쓸때(33.4%)→재봉(25.1%)→세탁(11.1%)→다림질(3.5%)→청소시 닦을때(2.5%)의 순으로 조리행위의 입식율이 가장 높고, 다림질과 닦는 청소행위의 입식율이 제일 낮았다. 1994년은 일상적인 조리(92.9%)→청소시쓸때(31.5%)→세탁(19.8%)→비일상적인 조리(13.1%)→청소시 닦을때(6.7%)→재봉(4.7%)→다림질(3.9%)의 순으로 닦는 청소와 다림질의 입식율은 시간의 경과에도 변함없이 제일 낮았다. 일상적인 조리이외의 대부분의 가사노동행위는 현재 좌식 또는 혼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입식희망율은 높아져, 현재의 양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대도시 가정의 기거양식의 실태와 그 변화 추이를 시계열적인 관점에서 규명하여, 이에 적합한 주거공간의 계획을 제시하고자, 6년간의 시차를 두고 현재와 장래 희망하는 주생활행위시의 자세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거양식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

약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 거주자들의 주생활행위시 기거양식은 공동생활행위, 개인생활행위, 생리위생행위의 전반에 걸쳐 입식이 증가하여 진행되고 있으나, 일상적인 조리행위를 제외한 가사노동행위는 입식이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의 기거양식이 입식인 집단은 장래도 입식을 희망하는 경향이었으며, 혼용식인 집단은 혼용식을 희망하였고, 좌식인 집단은 입식과 혼용식(또는 입식과 좌식)을 희망하여, 현재의 기거양식의 성향이 장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상의 결과를 감안한 공간계획이 요망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거양식의 변화유형과 관련변인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1) 생활자세의 변화 측면에서 현재의 행위시 기거양식을 분류한 결과 입식형, 혼용식형, 좌식형, 병용형으로 나누어졌다. 입식형에는 입식이 유지된 행위(식사, 공부, 세면, 배변, 일상적인 조리), 입식, 혼용식, 좌식의 병존에서 입식으로 변화된 행위(독서)와 혼용식, 좌식의 병존에서 입식으로 변화된 행위(단란)가 있었으며, 혼용식형에는 혼용식이 유지된 행위(세탁), 입식, 혼용식, 좌식의 병존에서 혼용식으로 변화된 행위(청소시 쓸때)가 있었고, 좌식형에는 좌식이 유지된 행위(화장, 다림질, 청소시 닦을때)와 입식에서 좌식으로 변화된 행위(재봉)가 있었으며, 병존형에는 혼용식, 좌식의 병존에서 입식, 혼용식의 병존으로 변화된 행위(손님접대)와 좌식에서 입식, 좌식의 병존으로 변화된 행위(취침)가 있었다.

2) 주생활행위시의 기거양식은 연령, 가정의 소득, 주택의 유형, 거주 규모와 방의 수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경우에서, 거주면적과 방 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행위시 입식율이 높았는데, 공간계획시 이의 특성 반영이 요망되었다. 특히 각 연령대 별 기거양식의 차이를 감안하여, 전 행위에 걸쳐 입식이 우세한 청년층은 입식기거양식을 반영한 공간과 용구의 계획이 요구되며, 중년층은 식사공간과 생리위생공간은 입식, 단란 및 접객이 이루어지는 거실공간은

혼용식, 취침공간은 입식과 좌식이 융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노년층은 생리위생공간과 식사공간은 입식, 취침과 개인생활이 이루어지는 노인실은 좌식의 계획이 요망되었다. 또한 가사노동행위는 현재의 기거양식과 달리 입식희망율이 높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사용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앞으로의 공간계획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의 청년층의 기거양식 성향이 중, 노년층으로 되어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도시 지역의 기거양식만을 파악하였으므로, 전국적인 규모로 조사를 확대하여 지역적인 차이를 파악한다면 다양한 지역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겠다.

V. 참고 문헌

1. 김미희, 윤복자, 평면규모 30평 및 40평형대 아파트거주자의 공간사용방식(1)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8권1호, 1992.10.
2. 박운정, 단독주택의 주공간 구성과 주생활의 변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3. 신경주, 생활기기, 수확사, 1989.
4. 신수현, 1945년 이후 서울지방 일반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5. 윤정숙, 이은경, 한국 도시주택에 있어서 주생활양식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1990.
6. 이훈, 아파트의 주거환경과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5.
7. 임재홍, 집합주거의 단위평면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1.
8. 장상옥, 신경주, 서울지역 가정에서의 기거양식의 현황과 그 전망, 제5차 한.일가정학 Symposium, 1990.
9. 전한중, 박용환, 집합주택에 있어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

- 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권 3호, 1987.6.
10. 정준현, 이중우, 도시 대중주택 공간이용의 행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권 10호, 1993.10.
 11. 今井範子, 住様式がらみだ住宅平面に関する研究, 京都大學學位論文, 1986.
 12. 扇田信, 西村一朗, 今井範子, 住様式に関する研究, 住宅建築研究所報, 1979.
 13. 鹽谷壽翁, 下原拓也, 家族生活にあらわれる住生活スタイルとその志向性,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62號, 1994.8.
 14. 澤田知子, 이스式家具導入過程がらみだ 起居様式の指向性(その1),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報告集, 第438號, 1992.8.